

“호남에선 경쟁·수도권은 연대하라”

뉴스초점

호남민심 흐름은...

DJ세력과 친노세력의 결별
야권분열로 총선 패배 우려
정권교체 위한 혁신 보여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 가신그림인 동교동계의 좌장 권노갑 상임고문의 탈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기 기반 붕괴를 상징하고 있다. 호남 민심에 기반을 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노(친노무현) 세력 간 결별을 선언한 정치사적 사건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며 야권의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는 절박한 호남 민심이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탄생을 이끌어낸 호남 민심이 ‘친노 세력이 중심이 된 야당으로는 더 이상 정권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호남 민심은 지난 10여년 동안 ‘정치적 섬’으로 전락하면서도 친노 진영이 주도권을 쥔 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으나 선거 결과는 항상 ‘패배’로 귀결됐다. 여기에 친노 진영에 종속적 구도를 보여 왔던 호남 정치권에 대한 깊은 실망감도 ‘판을 바꿔야 한다’는 호남 민심의 흐름을 형성한 핵심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호남 민심이 처음부터 ‘야권의 재구성’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호남 민심의 출발은, 선거에 잇따라 패배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내 주류세력이 2선으로 후퇴하는 등 혁신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통합의 에너지를 창출,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의



동교동계 좌장도 탈당

‘동교동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노갑 상임고문이 12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더민주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전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호남 민심은 분열보다는 통합의 비전을 요구하는 흐름이 강했다. 하지만, 문 대표 등 당내 주류 세력은 과감한 혁신과 혁신으로 출구를 찾기 보다는 땀질식 처방과 한 박자 늦은 수습책으로 당내 분란을 키웠고, 더민주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 민심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에 나서는데 더민주를 대체할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호남 민심 이반

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야권의 창조적 재편을 통해 호남 개혁 정치의 복원을 이뤄야 한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야권의 뿌리인 호남 민심 이반은 현역 국회의원 연쇄 탈당 사태에 이어 권노갑 고문 등 DJ 세력의 이탈을 부르며 제1야당인 더민주의 실질적 분당 국면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호남 민심의 기저에는 아직까지 분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야권 분열로 인한 총선 패배는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호남에서는 경쟁을, 수도권에서는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당장은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더민주에서 진정성 있는 혁신과 통합의 모습을 보인다면 호남 민심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민주와 신당 세력 가운데 어느 진영이 정권 교체를 위한 혁신과 혁신의 모습을 보이느냐가 총선 막판 호남 민심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출신 첫 ‘농민 대통령’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당선

나주 남평 조합장 3선 지내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3선을 지낸 김병원(63)씨가 12일 임기 4년의 제5대 민선 농협중앙회장에 당선됐다.

〈관련기사 3면〉

그의 당선은 ‘전라도 출신은 농협중앙회장이 될 수 없다’는 편견 속에서 이른 ‘독심의 승리’다. 또한 농촌 마을의 작은 농협에서 ‘왕건이 탄넬 쌀’ 등을 브랜드화하는 등 ‘전라도 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펼 그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농협중앙회장으로 오른 김 신임 회장은 1978년 농협에 입사한 뒤 남평농협에서 맡던 직위에 서부터 전무를 거쳐 1999년부터 13년간 조합장을 3차례 지낸 임지전적인 인물이다.

나주 남평농협은 2006년 다도농협을 흡수 합병했다. 현재 임직원은 100명, 농가수는 2683가구에 조합원수 2894명의 농촌형 농협이다.

김 신임 회장은 친환경농업이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친환경 쌀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 농가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농협경영을 이뤘다. 그는 지역 사회·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농산물 택배사업을 시작해 농가에는 판로를 만들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했다.

나주시 관내 생산 농산물을 우선 공급했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만 공급해 절임배추와 친환경 패키지 택배는 수도권 소비자가 70%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 농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쌀에 대한 그의 사랑은 남달랐다. 2007년에는 나주시역 쌀인 ‘왕건이탄넬쌀’이 전국 12대 브랜드에 3년 연속 선정돼 일반 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 김 신임 회장은 남평농협 조합장 시절 광주일보에 소개된 기고를 통해 “쌀알이 촘촘히 달려있는 모습을 본따 만든 상형문자인 ‘쌀 미(米)’자의 유래는 ‘별씨를 뿌려 거둬 때까지 여든여덟 번(八十八) 손을 써야 한다’는 데서 찾기도 한다. 그 만큼 정성과 땅이 배야 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다”며 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광주농고와 광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10년 전남대에서 늦깎이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학업에 대한 간절함도 남달랐다.

김 신임 회장은 “조합장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어려움을 짊어지고 여러분분의 고민거리를 해결해드리는 회장이 되겠다”며 “세계 속에 빛나는 한국 농협을 만들어 234만 농업인 조합원이 웃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협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더민주 탈당

김옥두·이훈평 등 10명도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가신그림 동교동계의 좌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권노갑(86) 상임고문이 12일 탈당했다.

권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60여년 정치 인생 처음으로 몸 담았던 당을 저 스스로 떠나려고 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권 고문은 “연이

은 선거 패배에도 책임질 줄 모르는 정당, 정권교체의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한 정당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확신과 양심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제 제대로 된 야당을 부활시키고 정권교체를 성공시키기 위해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의 막대한 폐쇄된 운영 방식과 배타성은 이른바 ‘친노패권’이란 말로 구겨진지 오래됐다”며 “참고 견디면

서 어떻게든 분열을 막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저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김옥두·이훈평·남궁진·윤철상·박영수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 10여명도 이날 권 고문과 함께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기자회견장에는 권 고문만 나와 대표로 입장을 발표했다.

권 고문은 탈당 후 곧바로 신당에 합류하는 대신 제3지대에서 신당 세력의 통합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민주의 호남 텃밭 민심의 이탈과 함께 분당 국면이 가속화하고 야권 지형 재편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학규 전 상임고문 계인 더민주의 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에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노 패권 정치에 굴복할 수 없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13일에는 전남의 주승용 의원과 광주의 장병완 의원이 더민주를 탈당할 예정이다. 또 오는 15일에는 정대철 상임고문 등 전직 의원 40여명도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북 김제에 구제역...청정지 전남도 ‘초비상’

전남도와 함께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남도는 전북 경계지역인 영광, 장성, 담양, 곡성, 구례 등 5개 군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 발생 돼지가 충남산으로 밝혀지면서 전남도는 전북·충남산의 거래 및 도축도 제한했다.

〈관련기사 6면〉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전북 김제 한 축산농가 돼지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오자 전북지역 축산농가와 도축장 방문을 일일 금지하고 있으며 소독필증을 발급받은 축산 관련 차량에 한해서만

이동을 허가하고 있다. 또 전남 지역 모든 소, 돼지 축산농장과 도축장,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 일제 소독하도록 했으며, 농가는 자율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도록 통보했다. /윤현석기자chadol@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가톨릭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062)605-1114

LEXUS HYBRID ZERO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All New ES 300h

광주 전시장: 080-384-7733(광주 서구 상무대로 881) | 전주 전시장: 080-263-7743(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21) | www.hyosunglexus.com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ES 300h(배기량 2,494cc, 공차중량 1,685kg, E-CVT 변속기), 복합연비: 16.4km/ℓ(도시연비: 16.1km/ℓ, 고속도로연비: 16.7km/ℓ), 복합CO₂ 배출량: 103g/km, 등급: 1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한다

차를 향해 걸어가는 순간부터 시작된 감동은 차에 오르는 순간과 드라이빙의 순간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완벽하게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조차 럭셔리하게 바뀌게 될 렉서스 All New ES 300h. 당신은 감동하고 세상은 주목할 단 하나의 하이브리드입니다

